

거인(巨人)에 대한 고대 중국인의 인식*

張貞海**

<目 次>

1. 머리말
2. 大人, 長人, 巨人
3. 고대 중국인의 거인(巨人) 인식
4. 맺는 말

1. 머리말

거인에 관한 신화는 동서양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그리스의 티탄(Titan)족이나, 북유럽의 이미르(Ymir) 신화 등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는 창조신인 盤古나 해를 쫓아가다 죽은 夸父, 한국에서는 설문대 할망이나 마고할미 등의 거인신화가 있다. 신화 속의 巨神들은 보통사람들보다 엄청나게 큰 몸집을 지닌 초자연적인 존재들로서 중국의 창조신 盤古는 날마다 한 장(丈)씩 1만 8천년을 자랐다는 기록이 있으며 夸父는 黄河와 渭水의 물을 다 마셔버릴 정도로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의 문헌에는 창세신화 속의 초대형 거신들 이외에도 이들 만큼 거대하지는 않지만 일반인보다 훨씬 커다란 몸집을 소유한 거인의 기록도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山海經》에 기록된 ‘大人國의 거인들’이나 시조의 탄생과 연관되는 ‘거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신대학교 중국문화정보학부 교수

인의 발자국' 등에 관한 설화 등은 고대 중국인의 거인에 대한 환상과 숭배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 문헌 속의 거인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중국인들의 거인에 관한 인식이 양가적(兩價的)임을 발견할 수 있다. 거인은 神이나 神仙의 모습이었고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을 의미했으며, 현실 사회에서는 力士나 영웅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던 반면에 흉악한 이방인이었으며, 그들의 출현이 災異 현상의 하나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그 동안 충분히 논의되어졌던 창세신화의 우주적 거인을 제외한 거인들에 대한 기록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 거인에 관한 문헌 자료의 검토를 통해 중국인의 의식 속에 거인으로 이미지화되었던 대상들이 무엇인지를 살펴 볼 것이며, 아울러 거인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후대로 어떻게 전승되는지? 거인에 대한 중국인들의 상반된 인식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 大人, 長人, 巨人

중국 문헌에서 키가 큰 사람을 일러 '巨人', '大人', '長人'이라고 하였는데, 고대 중국에서는 오늘날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巨人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大人'이나 '長人'이 더 널리 사용되었다. 중국 문헌에서 키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를 한 사람은 孔子로서 《國語魯語》에 그 내용이 있다.

오나라가 월나라를 정벌하여 회계산을 무너뜨렸을 때 큰 뼈 하나를 얻었는데 수레 하나에 가득 찼다..... 오나라의 사자가 뼈를 집어 들고 공자에게 묻기를 "감히 묻건대 누구의 뼈가 가장 큰지요?" 하자, 공자가 "옛날 우 임금께서 회계산으로 모든 신들을 소집했을 때 방풍씨가 늦게 도착하니 우임금이 그를 죽여서 시체를 보였는데 그 뼈 한 마디가 수레에 가득하였다고 했으니 이것이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오나라 사신이 말하길 "방풍씨는 어디를 지키고 있었습니까?" 하자, 공자는 "왕망씨의 임금으로서 봉산과 우산을 지키고 있

있고 칠씨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 하, 상나라 때는 그들을 왕망씨라 불렀고, 주나라에서는 장적, 지금은 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했다. 사신이 “사람의 키는 얼마나 클 수 있습니까?” 하자 공자는 “초요씨는 3척으로 가장 작습니다. 큰 사람은 10척에 불과합니다.” 라고 했다. (吳伐越, 墮會稽, 獲骨焉, 節專車..... 客執骨而問曰: “敢問骨何爲大?” 仲尼曰: “丘聞之, 昔禹致群神於會稽之山, 防風氏後至, 禹殺而戮之, 其骨節專車, 此爲大矣.” 客曰: “防風何守也?” 仲尼曰: “汪芒氏之君也, 守封, 嶠之山者也, 爲漆姓. 在虞, 夏, 商爲汪芒氏, 於周爲長狄, 今謂大人.” 客曰: “人長之極幾何?” 仲尼曰: “焦僂氏三尺, 短之至也. 長者不過十之, 數之極也.”)¹⁾

공자는 회계산에서 발견된 거대한 뼈를 보고 이것이 방풍씨(防風氏)의 것이라고 하였다. 공자에 의하면 방풍씨는 왕망씨(汪芒氏)의 임금으로 봉산(封山)과 우산(嶠山)을 지키고 있었으며, 성은 칠(漆)씨로서 우(虞), 하(夏), 상(商) 나라 때는 왕망씨(汪芒氏)라 불렀고 주나라 때는 장적(長狄)이라 했으며 공자 당시에는 대인(大人)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자 시기의 ‘大人’은 키가 큰 사람 사람이란 의미 이외에도 거인족인 ‘長狄’이란 異邦 종족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며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방풍씨의 후예라고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長狄은 춘추시기 齊, 魯, 宋, 衛 부근에서 활동하였는데, 《春秋左氏傳》文公 11년 (B.C. 616년) 기록에는 長狄이 세운 나라인 수만국(隰滿國)이 노나라에 침입하였다가 추장 교여(僑如)가 노나라의 무사 숙손득신(叔孫得臣)과 부보종생(富父終甥)에게 죽임을 당한 내용이 상세히 실려 있다. 교여(僑如)는 방풍씨의 후예로서 머리 크기만 해도 수레에 가득 찼다는 거인이다. ²⁾

《山海經·大荒北經》에도 이들과 연관된 언급이 있는데 “대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대인국이 있는데 성이 이씨이고 기장을 먹고 산다. (有人名曰大人, 有大人之

1) (周) 左丘明 지음, (吳) 韋昭 주, 《國語》(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 p.213. 《史記·孔子世家》에도 이 일이 보인다. 《史記》에서는 ‘汪芒氏’를 ‘汪罔氏’로 ‘長狄’을 ‘長翟’, ‘漆姓’은 ‘釐氏’로 기록하였다. (新校本, pp.1912 -1913).

2) 楊伯峻, 《春秋左氏注》, 臺北: 源流文化公司, 1982, pp. 579 - 584. 《蒙梁傳》에는 “교여의 몸이 누웠을 때 9척이고 머리를 베어 수레에 실으니 수레 앞턱으로 눈썹이 보였다고 했다. (身橫九畝, 斷其首而載之, 眉見於軾)” (十三經注疏本 《穀梁傳》 卷11, p.108.)

國, 螿姓, 黍食)”³⁾라고 하였다.

공자가 고고학적인 발견에 대하여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했던 부분은 그가 일찍이 신화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했었던 것과 대비되는 면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공자가 불가사의한 사실을 설명할 때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신화를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커다란 뼈가 발견되었을 때 신화 속 거인이 그 주인공이라고 여긴 사례는 六朝時期에도 나타나는데 거대한 뼈가 발견되자 이것을 치우(蚩尤)의 해골이라고 했던 일이 있다. ⁴⁾

그러나 공자는 말미에 현실적으로 10척이 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설화적 거인과 현실적인 거인에 대한 구별을 뚜렷이 하였는데, 이는 신화는 신화로서 언급하면서도 현실상으로 그 이상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그의 현실주의적인 견해를 반영한 말이기도 하다. 공자는 스스로도 키다리(長人)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장신으로 9尺 6寸의 큰 키를 가지고 있었다.⁵⁾ 周代의 10尺은 194.96cm 정도가 되는데,⁶⁾ 전설에 의하면 周文王의 키가 10척이라고 했으니 이는 아마도 문왕을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중국 문헌에서 ‘巨人’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으로 키가 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며 주로 한대 이후의 문헌에서 나타난다. ⁷⁾ ‘長人’은 키가 큰 사람이란 의미 이외에 ‘연장자’나 ‘우두머리’⁸⁾ 등의 뜻이 내포된 말이다. ‘大人’의 의미는 좀 더 다양하여서 成人⁹⁾이나, 天子¹⁰⁾, 宰相¹¹⁾, 부족장¹²⁾, 부친¹³⁾, 연장자¹⁴⁾, 나이 많은 여자의 존

3) 정재서 역주, 《山海經》, 서울: 민음사, 1993, p.318.

4) 任昉, 《述異記》(《龍威秘書》本) 卷上: “지금 기주 사람들이 구리와 쇠처럼 단단한 해골을 파내었는데 치우의 뼈이다. 치우의 치아도 있는데 길이가 2촌으로 단단하여 부술 수 없다. (今冀州人掘地得髑髏如鋼鐵者, 卽蚩尤之骨也. 今有蚩尤齒, 長二寸, 堅不可碎.)”

5) 新校本《史記·孔子世家》: “공자의 키는 9척 6촌으로 사람들이 그를 키다리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여겼다. (孔子長九尺有六寸, 人皆謂之長人, 而異之.” (p.1909). 《法苑珠林》 卷第五 〈感應緣〉에서는 《春秋演孔圖》를 인용하여 “공자의 키는 10척이고 허리 둘레가 9아름이다. (孔子長十尺, 大九圍)” 라고 하였다.

6) 박홍수, 《한중도량형제도사》,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9, p.113.

7) 新校本《史記·周本紀》: “강원이 들에 나갔다가 거인의 발자국을 보았다. (姜原出野, 見巨人跡)”

8) 十三經注疏本《周易·文言》曰: “군자가 仁을 몸소 행하여, 남의 우두머리가 될만하다. (君子體仁, 足以長人.)”

9) 갑골문을 살펴보면 ‘大’는 본래 ‘大人’ 곧 ‘장성한 어른(成人)’을 가리키는 뜻이었으나 후에 ‘크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徐中舒主編, 《甲骨文字辭典》, 四川: 四川辭書出版社, 1990, p.1140)

칭15), 덕이 있는 사람16), 예와 의를 지키는 사람17) 등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니 고대 문헌에서 大人의 의미는 단순히 신장이 큰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치지 않고 연령이 높거나, 관직이 높은 사람 혹은 덕이 높은 사람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키는 키와 밀접하게 연결된 상상적 가치를 감추고 있다. 큰 키는 정신의 고양을 외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여겨져서 그리스 로마 신화, 북유럽 신화 등에서 등장하는 영웅들은 대개 몸집이 크게 묘사된다.18) 키가 큰 사람이 보통 키나 작은 키의 사람보다 영웅성을 인정받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서 중국 신화 속에는 많은 거신들이 등장하며, 고대 중국인들은 전설적인 聖王들을 미화하여 그들의 모습을 거구로 묘사하기도 하였는데 하나라의 시조 禹 임금이나 은의 湯 임금, 周 文王 등은 모두 9척 이상의 거인이었다. 19)

- 10) 新校本《史記·司馬相如列傳》：“대인이 중국에 계시네(世有大人兮，在于中州。)”라고 했는데 大人에 대해 《索隱》은 “장음이 말하길 ‘이는 천자를 비유한 것이다.’ 항수가 말하길 ‘성인이 재위에 계신 것을 대인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張揖云：“喻天子。”向秀云：“聖人在位，謂之大人。”) (p.3056)
- 11) 新校本《周書·楊疑式列傳》：“대인은 재상을 말한다 (大人爲宰相)” (p.1684)
- 12) 新校本《後漢書·光武帝紀》：“오환의 대인이 조공을 바치러 왔다(烏桓大人來朝)” 라고 했는데 《索隱》은 “대인은 우두머리이다. (大人謂渠帥也)”라고 했다. (p.76)
- 13) 新校本《史記·高祖本紀》：“처음에 아버지께서는 제가 무리하여 큰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始大人常以臣無賴，不能治產業。)”
- 14) 新校本《後漢書·馬援列傳》：“서울의 연장자들이 그릇이라 여기고 달리 생각하였다 (京師大人咸器異之)”의 注에서 “대인은 연장자를 말한다. (大人，長者之稱也。)” 라고 했다. (p.858)
- 15) 新校本《史記·刺客列傳》：《正義》에서 韋昭는 “옛날 남자를 장부라고 하고 나이 많은 여자를 늙여 대인이라고 했다. (古者名男子爲丈夫，尊婦嫗爲大人。)” (p.2523)
- 16) 新校本《史記·屈原賈生列傳》：《索隱》張機의 말을 인용하여 “덕은 감싸지 않는 것이 없다. 마음이 넓고 밝으니 대인이라고 부른 것이다. (德無不包，靈府弘曠，故名大人也。)” 라고 했다. (p.2500)
- 17) 十三經注疏本《孟子·離婁章句下》：“맹자가 말하길 ‘예에 어긋난 예와 의에 어긋난 예를 대인은 하지 않는다. (孟子曰：‘非禮之禮，非義之義，大人弗爲。’)” “대인은 말을 함에 누가 믿어주는 것을 바라지 않고 행동함에 결과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의를 따를 뿐이다. (大人者，言不必信，行不必果，惟義所在。)”
- 18) 카트린 몽디에 콜, 미셸 콜 지음, 이옥주 옮김, 《키의 신화: 프로크루스테스에서 엄지동자까지, 인간에게 키는 무엇인가》, 서울: 궁리, 2005, pp.23-27, pp.113-120.
- 19) 新校本《宋書·符瑞》：“우임금은.....자라서 성덕을 갖추었고 키가 9척9촌이었다. (帝禹.....長有聖德，長九尺九寸。)” “키가 9척에 네 개의 팔을 가지신 분이로서 은탕이라고 하였다. (身長九尺，臂有四肘，是曰股湯。)” “계력의 아내 태임은.....창을 낳았으니 주의 문왕이시다. 용의 얼굴에 호랑이의 어깨를 하고 10척 키에 가슴에는 네 개의 젖꼭지가 있었다. (季歷之妃，曰太任.....生昌，是爲周文王。龍顏虎肩，身長十尺，胸有四乳。)” (pp.763-764)

전국시대에도 큰 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민간에서 키나 외모를 가지고 관상을 보아 길흉을 점치는 풍습이 유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荀子は 〈非相篇〉에서 아래와 같이 비판한 바가 있다.

요 임금은 키가 컸고 순 임금은 작았으며, 문왕은 컸고 주공은 작았다. 공자는 컸고 자공은 작았다.....그러므로 일에 있어서 몸길이를 재지 않고 몸체와 몸무게를 재지 않았으며 다만 그 뜻을 알려고만 했을 뿐이다. 키의 크고 작음과 외모의 좋고 나쁨을 어찌 논했겠는가! (蓋帝堯長, 帝舜短. 文王長, 周公短. 仲尼長, 子弓短.....故事不揣長, 不揆大, 不權輕重, 亦將志乎爾. 長短大小, 美惡形相, 豈論也哉!)²⁰⁾

荀子は 당시 신장의 高低나 용모의 美醜로서 관상을 보는 세태를 비난하면서 외면보다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논조는 전통적으로 유가가 육체적인 거인이 아닌 관념적인 거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해 왔음을 보여준다.

3. 고대 중국인의 거인(巨人) 인식

중국 고대 문헌 속 거인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시조신화, 신선설화, 災異說 등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거인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이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대 중국인은 거인을 어떤 존재로 간주하였는가? 그들의 거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神

창조신화에서 우주형 거인으로 출현했던 거신들과는 달리 시조신화 속의 거신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周의 시조신화에서 거신은 발자국의 형태로 출현하여 시조의 출생에 관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后稷'과 '伏羲'의 신화이다. 《史

20) 王先謙, 《荀子集解》, 臺北: 藝文印書館, p.201.

記·周本紀》와 《詩經·大雅·生民》에는 후직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주나라 시조 후직의 이름은 기이다. 그의 어머니는 유태씨의 딸로서 이름을 강원이라 하는데 제곡의 원비이다. 강원은 들에 나갔다가 거인의 발자국을 보고 마음이 기뻐서 밟고 싶어졌는데 발자국을 밟자 몸이 잉태한 것처럼 움직임이 있더니 때가 되자 아들을 낳았다. (周后稷, 名棄, 其母有郤氏之女, 曰姜原. 姜原爲帝嚳元妃. 姜原出野, 見巨人跡, 心忻然說, 欲踐之, 踐之而身動, 如孕者. 居期而生子)

처음 백성을 낳은 분은 강원이시다. 어떻게 백성을 낳으셨나? 천제께 제사하사, 자식 없게 되지 않도록 하시고, 천제의 발자국을 밟아,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임신하시어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낳고 키우시니 이 분이 후직이시다. (厥初生民, 時維姜嫄. 生民如何, 克禋克祀. 以弗無子, 履帝武敏. 歆, 攸介攸止, 載震載夙, 載生載育. 時維后稷.)

이상에서 보면 주의 시조 후직은 그의 어머니 姜原이 들에 나갔다가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서 감응하여 낳았는데, 거인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발자국만 등장한다. 《詩經·大雅·生民》에 의하면 강원이 밟은 발자국의 주인은 '帝'이다. '帝'에 대해서는 '天帝'라든지 혹은 '帝嚳'을 가리킨다는 주장이 있으며, 혹자는 강원이 밟은 것이 실제로는 토템인 곰(熊)의 발자국이나 공룡의 발자국이라고 하였다. 21) 강원이 들에 나가서 거인의 발자국을 밟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제의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데, 거인의 발자국은 숭배의 대상으로서 巨神의 현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조신화의 특징 중의 하나가 부계혈통의 신성화이다. 거인발자국을 밟고서 태어난 시조는 그들이 숭배했던 거신의 자손으로서 신성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22)

복희(伏羲)도 그의 모친 華胥가 너택에서 큰 발자국(大跡)을 밟고 태어났다고 했는데 《詩含神霧》와 《孝經鉤命決》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21) 蕭兵, 《神話: 太陽英雄神話的奇蹟棄子英雄篇》, 《伏羲生子和圖騰受孕》, 臺北: 桂冠出版社, 1992, 참고.
22) 거인의 발자국에 대한 논의는 윤순, 〈古代中國과 《三國遺事》의 感生神話 연구〉(《清大學術論集》 제1집 〈인문과학〉), 2003)를 참고할 수 있다.

큰 발자국이 뇌택에서 나왔다. 화서가 그것을 밟고서 복희를 낳았다.(大迹出雷澤, 華胥履之, 生宓犧.)

화가 발자국을 밟고 기이하게 복희를 낳았다. (華胥履跡, 怪生皇羲)²³⁾

雷澤의 신은 '雷神'이다. 《山海經·海內東經》에는 “뇌택 속에 뇌신이 있는데 용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하고 자기 배를 두드린다. (雷澤中有雷神, 龍身而人頭, 鼓其腹)”라고 하였으니 華胥가 밟은 ‘大跡’은 ‘龍’의 발자국 형태를 띠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三皇의 하나로 추대되는 伏羲는 人面蛇身이나 人面龍神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묘사되는데 이는 뇌신과 같은 모습이다. 이 설화는 漢代 劉邦의 탄생설화에서 그대로 재현되는데 단지 큰 발자국 대신 蛟龍이 직접 나타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²⁴⁾ 이로 인해 창조된 것이 ‘眞龍天子’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들어서면 ‘큰 발자국(巨跡)’에 대한 숭배의식이 이미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神仙

전국시대 이후로 신선 사상이 유행하면서 많은 신선설화가 전해지는데 신선들의 세계는 사물들이 모두 커서 일반세계와는 구별이 되는 곳이며,²⁵⁾ 신선들은 자유롭게 飛翔하며 불사의 존재이고 거인들이다. 《史記·封禪書》에는 ‘蓬萊神人’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아래와 같다.

임금께서 바다 속 신선의 산을 보았다고 한 사람들 수천 명에게 봉래 신인을 데려오라고 명하였다. 공손경이 부절을 들고서 먼저 가서 명산에서 기다렸다.

23) 《太平御覽》卷78.

24) 新校本 《史記·高祖本紀》：“그의 모친 유씨가 한 번은 큰 연못가에서 휴식을 취하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 신을 만났다. 이때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갯불이 번쩍이더니 사방이 어두컴컴해졌다. 태공이 달려가 보니 교룡이 부인의 몸 위에 있었다. 얼마 후에 태기가 있더니 드디어 고조를 낳았다. (其先劉媪, 嘗息大澤之陂, 夢與神遇, 是時雷電晦冥, 太公往視, 則見蛟龍於其上, 已而有身遂產高祖.)

25) 新校本 《史記封禪書》：“신이 일찍이 해상에서 노닐 적에 안기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큰 대추를 주기에 먹었는데 크기가 참외만 하였습시다. (臣嘗游海上, 見安期生, 食巨棗, 大如瓜)” (p.1385)

동래에 이르러 밤에 거인을 보았는데 키가 몇 장이나 되었다. 가까이 가니 사라졌는데 발자국을 보니 매우 커서 짐승 것과 비슷했다. 신하들이 아뢰길 “개를 끌고 가는 노인 하나를 보았는데 임금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말하더니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임금이 큰 발자국을 보고도 믿지 못하다가 신하들이 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그가 신선일 것이라고 여겼다. (令言海中神山者數千人求蓬萊神人。公孫卿持節常先行。候名山，至東萊，言夜見大人，長數丈，就之則不見，見其跡甚大，類禽獸云。群臣有言見一老父牽狗，言“吾欲見巨公”，已忽不見。上即見大跡，未信，及群臣有言老父，則大以爲僊人也。 26)

공손경이 동래산에서 신선을 만났는데 천자를 뵈고 싶다고 하였다.....동래에 이르러 며칠을 묵었는데도 만나지 못하고 거인의 발자국만 보았다. (公孫卿言見神人東萊山，若云見天子.....遂至東萊，宿留之數日，無所見，見大人跡。)27)

진시황에 못지않게 漢 武帝는 신선을 만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으며 方士들을 수차례 동해로 보냈을 정도로 神仙과의 만남을 갈망하였다. 漢代 사람들은 봉래산이 신선들의 세계이며 일반인이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키가 몇 장이나 되는 仙人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으며, 큰 발자국은 신선들이 남긴 것으로 여겨졌다. 蓬萊山에 사는 ‘大人’에 관한 기록은 《山海經》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동해의 바깥, 대황의 한가운데파곡산이라는 곳과 대인국이 있다. 이름을 대인당이라고 하는 거인들의 저자가 있다. 한 거인이 그 위에 쭈그리고 앉아 양팔을 벌리고 있다. (東海之外，大荒之中……有波谷山者，有大人之國，有大人之市，名曰大人之堂，有一大人踞其上，張其兩耳) 〈大荒東經〉 28)

봉래산이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 거인들의 저자가 바다 한가운데 있다. (蓬萊山在海中。大人之市在海中) 〈海內北經〉 29)

위의 기록들과 《史記》의 蓬萊神人を 대조해 보면 양자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郝懿行은 《山海經箋疏》에서 봉래산이 신기루 현상에 의해 나타난 섬

26) 위의 주, p.1397.

27) 新校本 《史記·孝武本紀》, p.477.

28) 정재서역주, 《山海經》에서는 “張其兩耳”의 ‘耳’는 ‘臂’의 잘못이라고 하였다.(p.286)

29) 위의 주, p.279.

을 이룬다고 하였다.³⁰⁾ 《山海經》의 ‘大人國’에 관한 기록은 중국의 동쪽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믿음이 매우 오래된 것임을 알려준다.

송옥(宋玉)의 초혼(招魂)에서도 “동쪽은 기대 살 수 없는 곳인데, 거인의 키가 천 길인데, 오직 사람의 혼만을 찾아낸다네. (東方不可以託些, 長人千仞, 惟魂是索些)” 라고 하여 동방의 거인들에 대해 적고 있다. 동쪽의 거인들은 불사의 존재이다. 《楚辭·天問》에는 “불사의 나라는 어디이며 거인은 어디를 지키고 있나? (何所不死, 長人何守?)”라고 하였는데 王逸은 注에서 《括地象》를 인용하여 “불사국이 있다. 장인은 장적이다. (有不死之國. 長人, 長狄)”라고 하여 신선설화와 거인족 ‘長狄’을 연관시켜 해석하고 있다.³¹⁾ 한대 이후로 신선설화 속의 거인과 거인족 長狄이 언어, 지리상의 유사함으로 인해 혼동된 것으로 여겨진다.

신선설화 속에는 거대한 모습의 거인도 등장하는데, 《列子·湯問》의 원래는 신선세계를 잃어지고 있는 거대한 거북 여섯 마리를 한 번에 낚을 수 있을 만큼 거대했었으나 별을 받아 수십 길의 신장으로 줄어든 ‘龍伯國’의 거인이나, 《神異經》의 서북 바다 밖에 살며 키가 2000리가 되는 ‘無路之人’이라는 거인은 마치 창조신화 속의 초대형 거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 봉래신인들과 비교된다.³²⁾

3) 異邦人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 상상했던 많은 기록들이 전해지는데, 고대인의 세계관에서 낯선 먼 나라들은 유토피아이기도 했고 괴물들이 사는 무서운 나라이기도 했다. 고대 중국인들도 이방인을 거인이나 작은 사람, 괴상한 모습을 한 사람 등등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놓았는데 《山海經》에는 머리가 세개인 사람들이 사는 ‘三頭國’, 입에서 불을 내뿜는 사람들이 산다는 ‘厭火國’,

30) 郝懿行, 《山海經箋疏》,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 p.370.

31) 洪興祖, 《楚辭補註》, 臺北: 藝文印書館, 1981, p.161.

32) 《列子·湯問》: “龍伯之國有大人, 舉足不盈數步而暨五山之所, 一釣而連六鰓, 合負而趣, 歸其國, 灼其骨以數是岱輿員嶠二山, 流於北極, 沈於大海, 仙聖之播遷者巨億計, 帝憑怒, 侵滅龍伯之國使, 侵小龍伯之民使短, 至伏羲神農時, 其國人猶數十丈.” 《神異經·西北荒經》: “西北海外有人, 長二千里, 兩脚中間相去千里, 腹圍一千六百裡, 但日飲天酒五斗, 不食五穀魚肉, 唯飲天酒……與天地同生, 名無路之人, 一名仁, 一名信, 一名神.”

가슴에 구멍이 뚫린 사람들이 사는 ‘貫匈國’ 등 여러 가지 기이한 모습의 이방인이 존재하는 나라가 있다.

예로부터 중국인은 중국의 동쪽에 거인족이 산다고 여겼는데 《史記·五帝本紀》에 언급된 동쪽의 키 큰 종족이란 의미의 “東長”³³⁾이나 《說文解字》에서 동쪽의 이민족을 총칭하는 ‘東夷’라는 명칭에도 ‘크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³⁴⁾ 동방의 거인에 대한 서술은 宋代에도 이어지는데 구양수(歐陽修)·송기(宋祁) 등이 편찬한 《新唐書》에는 ‘新羅의 거인’에 대한 기록이 있다.

거인은 크기가 3장으로 이는 툽날 같고 손톱은 갈고리 같으며 온몸에 검은 털이 나있다. 음식을 날로 먹고 짐승을 뜯어 먹으며 사람을 잡아먹고, 부인을 얻어서 옷을 해 입기도 한다. 그 나라는 산이 수십 리 이어지고 험곡이 있으며 쇠문으로 단단히 방어해 놓았는데 이를 관문이라고 부른다. (長人者, 人類長三丈, 鋸牙鉤爪, 黑毛覆身, 不火食, 噬禽獸, 或搏人以食; 得婦人, 以治衣服. 其國連山數十里, 有峽, 固以鐵闔, 號關門)³⁵⁾

신라에는 거인이 사는데 키가 3丈이나 되며 툽날 같은 이에 갈고리 같은 손톱과 온몸에는 털이 나 있는 괴물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 거인은 생식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먹는 등 매우 야만스러운 존재이다.³⁶⁾ 당시에 신라는 비록 먼 이방이었으나 중국과는 이미 오랜 교류를 통해 선린 관계에 있어서 미개인의 나라로 여겨질 만큼 낮은 나라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은 설화나 奇聞을 듣고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³⁷⁾ 거인에 대한 서술은 주로 동방에 많이 나타나지만 더러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묘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33) 新校本《史記·五帝本紀》: “동쪽으로 장, 조이, 사해의 안이 모두 순임금의 공적을 높게 되었다. (東長鳥夷, 四海之內, 咸戴帝舜之功)” 《索隱》은 “長자 밑에 夷가 빠져 있다. 長夷이다. (長字下少一夷字. 長夷也)” 라고 하였다. (pp.43-44)

34) 《說文解字》‘羌部’에는 “東夷從大, 大, 人也.” 라고 하였다. (段玉裁, 《說文解字注》,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 p.147)

35) 新校本《新唐書·東夷列傳》, pp.6202-6203.

36) 方善柱는 《新唐書·新羅傳》所載 長人記事에 대하여 (《史叢》, 第8輯, 1964)에서 新唐書의 이 기사가 718년 신라를 다녀왔던 顧翥의 《新羅國記》에 의거해 기록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p.9)

37) 新校本《舊唐書·東夷列傳》에는 신라의 풍습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서 당시 중국이 신라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5334)

중국의 서방에 살고 있다는 ‘天竺國’, ‘車離國’, ‘大秦國’ 사람들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河圖玉版》에서 말하길 곤륜산 동쪽으로 대진국 사람이 있는데 키가 10장이고 여기서 동쪽으로 10만 리를 가면 조국 사람이 있는데 키가 3장 5척이다. 여기서 동쪽으로 10만 리를 가면 중진국 사람이 있는데 키가 1장이다. (《河圖玉版》: “從崑崙以東, 得大秦國人, 長十丈. 從此以東十萬里, 得佻國人, 長三丈五尺. 從此國以東十萬里, 得中秦國人, 長一丈.”) 38)

《위지(魏志)》에서 말하길 “천축국(天竺國) 사람은 모두 키가 1장 8척이고, 차리국(車離國)의 남녀는 모두 8척이다.”라고 했다. (魏志曰: “天竺國人皆長一丈八尺. 車離國男女皆長八尺”) 39)

秦漢 이후로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이방과 이방인에 대한 묘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위와 같이 중국인의 주변국 혹은 먼 이방인에 대한 기록들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온 설화 위에 실제로 외국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의해서 전해진 소식이 더해져서 과장되게 전달된 면이 있으나 당시의 華夷觀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4) 力士

현실 사회에서 거인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큰 체격으로 鬪士나 力士로서 이름을 남겼는데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거인으로 완옹중(阮翁仲)과 거무패(巨毋霸)를 들 수 있다. 《漢書王莽傳》에는 왕망 시기에 유명한 장수 거무패에 대한 기사가 있다.

한박이 상서를 올려서 아뢰길 “어떤 키가 한 장에 몸 둘레가 열 아람이나 되는 기이한 선비가 신의 집에 와서 오랑캐를 쳐부수고자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이

38) 《法苑珠林》卷第五〈人道部感應緣〉. 張華의 《博物志》에는 “대진국 사람은 키가 10장이고 중진국 사람은 일장이며 임조 사람은 3장 5척이다. (大秦國人長十丈, 中秦國人長一丈, 臨洮人長三丈五尺)” 라고 했다. (《博物志校證》, 臺北: 明文書局, 1984, p.23)

39) 위의 주.

름을 거무패라 하며 봉래의 동남쪽 오성의 서북쪽에 있는 소여 바닷가에서 왔다고 합니다. 몸집이 장대하여 수레에 타지 못하고 세 필의 말로도 끌지 못하니 제가 오늘 네 필의 말이 끄는 큰 수레에 호랑이 깃발을 꽂아 대궐로 보냈습니다. 거무패는 잘 때 북을 베개로 삼고 쇠 젓가락으로 밥을 먹으니 이는 하늘이 우리를 도우시려는 것입니다. (韓博上言：“有奇士，長丈，大十圍，來至臣府，曰欲奮擊胡虜。自謂巨毋霸，出於蓬萊東南，五城西北昭如海瀕，輶車不能載，三馬不能勝。卽日以大車四馬，建虎旗，載霸詣闕。霸臥則枕鼓，以鐵箸食，此皇天所以輔新室也。”) 40)

거무패는 키가 한 장이고 허리가 십 아홉이나 되는 거인으로 당시에는 거인이 남다른 몸집으로 역사로 추앙되었음을 알 수 있다. 《後漢書光武帝紀》에는 그가 壘尉라는 직책을 맡고 맹수를 조련하여 전쟁에 참여시키는 일을 했다고 하였다.

41) 《漢書》에는 그의 모습이 매우 기괴하게 묘사되어 있으나 문맥의 흐름상 한박이 일부러 풍자적으로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신선들이 사는 곳이라는 봉래 근처 지역의 출신이라는 것인데 명칭에 걸맞게 그 지역의 사람들이 거인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42)

완옹중(阮翁仲)은 秦나라 시기의 무사로서 安南 사람이며, 진시황 시기에 흉노를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고 전해지는 거인이다. 明의 彭大翼이 지은 《山堂肆考》에서는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옹중은 성이 완이고 키가 1장2척이다.....진시황이 천하를 병합할 때 옹중을 시켜 임조를 지키게 하였는데 명성이 흉노에 떨치었다. 진나라 사람들이 이 일을 경사스럽게 생각했다. 옹중이 죽자 동상을 만들어 함양궁의 사마문 밖에 세웠다. (翁仲姓阮，身長一丈二尺.....秦始皇並天下，使翁仲將兵守臨洮，聲振匈奴，秦人以爲瑞。翁仲死，遂鑄銅像，置咸陽司馬門外。) 43)

40) 新校本《漢書·王莽傳》，p.4157.

41) “당시 거인 거무패는 키가 1장, 허리둘레가 십 아홉으로 누워란 직분에 있었고 여러 맹수들과 호랑이, 표범, 무소, 코끼리 등을 몰아 아군을 도왔다. (時有長人巨無霸，長一丈，大十圍，以爲壘尉，又驅諸猛獸虎豹犀象之屬，以助威武.)

42) 郝懿行은 거무패에 대한 한박의 묘사와 봉래 부근의 바닷가 출신이라는 언급에 근거하여 그가 《산해경·대황북경》에 기재된 ‘大人之國’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였다. (위의 책, p.396)

43) (明) 彭大翼 《山堂肆考》(梅墅石渠閣藏版)

阮翁仲의 키가 1장 2척이라고 했는데, 44) 그에 관한 기록은 正史에 나타나지 않고 명대에 비로소 보이기 때문에 실존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이런 전설적인 성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거인의 대명사로 후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진시황이 그의 사후에 그를 기리는 동상(銅像)을 세웠다고 했는데 지금도 묘지 앞의 石人이나 石像을 ‘웅중(翁仲)’이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웅중이 제주도의 ‘돌하르방’으로 변형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며, 45) 14세기 후반에 편찬된 베트남의 설화집 《嶺南摭怪列傳》에도 ‘웅중(翁仲)’의 영웅담이 실려 있다. 46)

웅중이 지켰던 ‘臨洮’ 지역은 지금의 甘肅省 경내로 진시황 시절 12명의 大人⁴⁷⁾이 출현했 곳이며 張華의 《博物志》에도 “임조 사람은 키가 3장 5척이다. (臨洮人長三丈五尺)” 48)라고 하여 이 지역에 거인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다수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거인들 이외에도 고대 문헌에는 많은 거인이 등장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거인은 전쟁터에서는 전쟁 영웅으로서 그 진가를 발휘하였고, 일반적으로도 피력을 소유한 力士로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5) 災異 관념 속의 거인

거인의 출현은 재이관념과 연관되어 전조현상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거인의 출현에 대해 상황에 따라 길흉의 상반된 해석을 하였다. 진시황 때는 거인이 출현하자 이것을 길조로 여겨 12金人을 만든 일이 있으나, 한대 이후에는 이를 흉조로 여긴 것을 볼 수 있다. 《漢書五行志》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44) 秦始皇 26년의 통일 尺度에 의하면 1尺은 20. 107cm이다. 그러므로 秦代의 1장 2척은 지금의 241cm 정도이다. (박홍수, 위의 책, p.155)

45) 김정선, 〈웅중석(翁仲石): 돌하르방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46) 《嶺南摭怪等史料三種》,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 pp.24-25. 여기에는 ‘李翁仲’으로 돼 있음.

47) 《史記陳涉世家》의 내용 중 “金人十二”란 구절에 대해 司馬貞은 《索隱》에서 “각기 무게가 천석이고 앉은 키가 2장인데 웅중이라고 불렀다. (各重千石, 坐高二丈, 號曰翁仲)” 라고 했다.

48) 張華, 위의 책, p.23.

사서에 기록하길 진시황 26년 키가 5장 신발이 6척이며 오랑캐의 의복을 입은 12명의 거인이 임조에 나타났다고 했다. 하늘이 경계하여 이르길 “오랑캐의 행위를 크게 여기지 말아라. 장차 화를 입으리라.” 라고 했다. 그 해에 진시황이 육국을 처음으로 병합하니 오히려 기뻐서 이를 길조로 여기고 천하의 병기를 녹여서 금인 열두 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성현이라 칭하고 시서를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묻었으며 사치하고 포악했으며 영토를 넓히는데 힘썼다.....그러므로 거인들이 임조에 나타난 것은 환란의 시초가 분명하니 14년이 지난 후에 진나라가 멸망하였다. (史記秦始皇帝二十六年, 有大人長五丈, 足履六尺, 皆夷狄服, 凡十二人, 見於臨洮. 天戒若曰, 勿大爲夷狄之行, 將受其禍. 是歲始皇初并六國, 反喜以爲瑞, 銷天下兵器, 作金人十二以象之. 遂自賢聖, 燔詩書, 阨儒士; 奢淫暴虐, 務欲廣地.....故大人見於臨洮, 明禍亂之起. 後十四年而秦亡.) 49)

위의 기록은 거인의 출현에 대해 전후대의 다른 해석을 보여준다. 진시황 시기에는 거인의 출현이 길조로 여겨진 반면 《漢書》에서는 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겼다. 동일한 사건이 시기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내려진 것은 거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거인의 출현은 후대로 갈수록 흉조로 간주되고 있는데, 《晉書五行上》은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경초 원년(237년)에 구리 거인상 둘을 발견했는데 웅중이라고 부르며 사마문 밖에 두었다. 옛날에 거인이 나타나면 나라가 망했다. 장적이 임조에 나타난 것은 진이 망할 징조였는데 진시황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길조라고 생각하여 구리로 동상을 만들었다. 위나라가 망국의 기물들을 본받았으나 그것들의 의미를 몰랐으니 복요(服妖)이다. (景初元年, 發銅鑄爲巨人二, 號曰翁仲, 置之司馬門外. 案古長人見, 爲國亡. 長狄見臨洮, 爲秦亡之禍, 始皇不悟, 反以爲嘉祥, 鑄銅人以象之. 魏法亡國之器, 而於義竟無取焉. 蓋服妖也.) 50)

위의 내용에 의하면 위나라 시기에도 거인이나 거인상의 출현을 길조로 생각하는 풍조가 남아있었음을 볼 수 있다. 《晉書》에서는 이를 ‘복요(服妖)’라고 하여

49) 新校本 《漢書五行志》, p.1472.

50) 新校本 《晉書五行上》, p.822. 《宋書·符瑞上》에는 이 일을 “ 처음 진시황 때에 12명의 거인이 있었는데 키가 5장에 발자국이 6척이었습니다. 농서 임조에 나타나니 전대의 사서는 진이 망할 징조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한나라가 흥성할 길조입니다. 고제부터 평제까지 12분의 임금에 계셨습니다. (初, 秦始皇世, 有長人十二, 身長五丈, 足跡六尺, 見於隴西臨洮, 前史以爲秦亡之徵, 史臣以爲漢興之符也. 自高帝至于平帝, 十二主焉.)라고 하여 漢에는 길조라고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역시 진나라가 망할 징조로 해석한 것이다. (p.769)

불길하다고 하였다. 이는 구리상들이 장적의 옷을 입었기 때문으로. 《한서·오행지》에서 거인들의 출현을 夷狄의 출현으로 여겨져서 불길하다고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견해이다. 《隋書》는 거인의 출현 이후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진나라 영정 3년(559년)에 키가 3장인 거인이 나부산에 나타났는데 온몸이 모두 흰색이었고 의복은 아름다웠다. 경방이 말하길 “거인이 나타나면 망한다.” 했는데 2년 후에 임금께서 돌아가셨다. (陳祿定三年, 有人長三丈, 見羅浮山, 通身潔白, 衣服麗京房占曰: “長人見, 亡” 後二歲 帝崩)⁵¹⁾

羅浮山은 쯤의 갈홍(葛洪)이 신선의 도를 닦은 仙山으로 도교의 명산이다. 이 산에 나타난 거인은 정황으로 보아 신선의 모습을 하였으며, 이 기록도 신선설화의 범주에서 이해되어야 마땅한 것 같은데 《隋書》에서는 이를 災異로 간주하였고 京房의 점괘를 따라서 불길하다고 해석하였다. 京房은 前漢의 역학자로서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여 명성이 높았는데 후대의 재이 해석에 있어서 그의 권위는 가히 절대적이다. 京房은 거인을 長狄과 동일시하고 거인의 출현을 흉조로 부각시켰는데 아마도 진시황의 사례가 그에게 많은 시사를 주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후대로 가면서 중국인들은 점차 이들을 병리학적인 입장에서 질병을 가진 사람들로 인식하였다. 《魏書·靈徵志》를 비롯하여 《宋書·五行志》 등에는 거인의 일을 ‘人癘’라는 항목 밑에 기술하였는데 ‘人癘’는 사람의 몸이 이상하게 변화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癘’는 질병이라는 뜻이니 거인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본 것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광 원년 오월 무술일에 남연주 하채군에 거인의 발자국이 나타났는데 일곱 걸음 자국이 다. 길이는 1척8촌이며 넓이는 7촌 5분이다. (正光元年五月戊戌, 南兗州下蔡郡有大人跡, 見行七步, 跡長一尺八寸, 廣七寸五分)⁵²⁾

명제 태에 원년 정월에 거인이 태자서 연못 위에 나타났는데 발자국이 3척 남

51) 新校本 《隋書·五行下》, p.660.

52) 新校本 《魏書·靈徵志上》 〈人癘〉, p.2916.

것 되었다. (明帝泰豫元年正月, 巨人見太子西池水上, 跡長三尺餘)⁵³⁾

여기서 보건대 거인의 출현이나 거인의 발자국이 더 이상 신성한 대상으로 간주되지 못하고 재이 현상의 하나로서 장차 불길한 일의 발생을 나타내는 조짐이 된다. 《新唐書五行志》에는 심지어 거인을 조정에 바친 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원23년 4월 기주에서 거인 이가총을 바쳤는데 키가 8척 5촌이었다. (開元二十三年四月, 冀州獻長人李家寵, 八尺有五寸.)⁵⁴⁾

문헌에는 李家寵에 대해서 상세한 언급하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상황을 두고 보았을 때 이 시기 거인들은 과거에 그들에게 부여되었던 力士로서의 명예 대신 그들을 자연의 常道를 벗어난 존재로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대면해야 했을 것이다. ‘人癩’ 항목에서 정작 오늘날 거인들에게 흔히 보이는 말단비대증과 같은 거인증의 일반적인 병리현상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이 없는 점도 당시의 사람들이 거인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재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4. 맺는 말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살펴보면 거인에 관한 중국인의 인식은 관념적, 설화적,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대 이전의 고대 문헌에서 巨人是 일반적으로 ‘大人’, ‘長人’으로 호칭되었는데, ‘大人’, ‘長人’은 키가 큰 사람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을 구비한 사람이나 신분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 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53) 新校本 《宋書五行》〈人癩〉, p.1009.

54) 新校本 《新唐書五行三》〈人癩〉, p.955.

伏羲와 后稷의 탄생신화에서 거인은 신성한 父系를 상징하는 神的 존재로서, 큰 발자국으로 顯現하여 시조의 탄생에 관여한다. 전국시기 이후에 유행한 신선설화 속에서는 '蓬萊神人'으로 대표되는 거인 신선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중국의 동쪽 바다 위에서 자유롭게 비상하는 不死의 존재였다.

또한 중국인은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거인으로 기록하였는데, 여기에는 고대 중국인의 지리 관념과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사방의 이방인 가운데 동방의 거인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 이는 실제로 동방에 키가 큰 이방인들이 살았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거인의 기록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大人', '長狄'으로 불리는 동북방의 거인족이다. 《春秋》나 《國語》, 《山海經》 등 고대 역사기록이나 설화 속에서 끊임없이 언급되어 온 이 거인 집단은 오랜 세월 동안 華夏族과 이웃하며 대치하고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長狄의 거인들'과 '신선설화 속의 거인들'이 후기 문헌에서 혼동되어 언급되어지는 면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국시대 이후 키가 특별하게 크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출현은 때로는 길조로 때로는 흉조로 간주되어 문헌에 기록되었다. 진시황 시기에는 거인의 출현이 상스럽게 여겨진 반면에 漢代 이후에는 災異관념이 유행하면서 재이의 전조로 간주되었는데 京房이나 기타 역사가들은 이를 '長狄'의 출현과 동일시했고, 이로 인해 야기될 '제왕의 죽음'이나 '나라의 멸망' 등을 예견하였다.

재이설의 영향으로 현실 세계에서 武士나 力士로서 숭배 받던 거인들은 점차 그 영웅성을 잃어가고 《魏書》, 《宋書》 이후로는 그들의 長身이 질병으로 여겨져서 문헌에 기록되었다.

《參考文獻》

- 新校本 《史記》，北京：中華書局。
新校本 《漢書》，北京：中華書局。
新校本 《後漢書》，北京：中華書局。
新校本 《魏書》，北京：中華書局。
新校本 《宋書》，北京：中華書局。
新校本 《晉書》，北京：中華書局。
新校本 《周書》，北京：中華書局。
新校本 《隋書》，北京：中華書局。
新校本 《舊唐書》，北京：中華書局。
新校本 《新唐書》，北京：中華書局。
十三經注疏本《周易》，臺北：藝文印書館。
十三經注疏本《詩經》，臺北：藝文印書館。
十三經注疏本《孟子》，臺北：藝文印書館。
十三經注疏本《穀梁傳》，臺北：藝文印書館。
(周) 左丘明 지음, (吳) 韋昭, 《國語》，臺北：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
(晉) 張華 지음, 范寧校證, 《博物志校證》，臺北：明文書局, 1984.
(宋) 李昉 等, 《太平御覽》，臺北：商務印書館。
(宋) 洪興祖 《楚辭補註》，臺北：藝文印書館, 1981.
(明) 彭大翼, 《山堂肆考》，梅墅石渠閣藏版。
(清) 郝懿行, 《山海經箋疏》，臺北：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
(清) 王先謙, 《荀子集解》，臺北：藝文印書館。
(清) 段玉裁, 《說文解字注》，臺北：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
楊伯峻, 《春秋左氏注》，臺北：源流文化公司, 1982.
周次吉, 《神異經研究》，臺北：文津出版社, 1986.
《嶺南撫怪等史料三種》，鄭州，中州古籍出版社, 1991.
김정선, <옹중석(翁仲石): 돌하르방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2008.
박흥수, 《한중도량형제도사》,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9.
方善柱, <新唐書 新羅傳所載 長人記事에 대하여>, 《史叢》, 第 8 輯, 1964.
徐中舒主編, 《甲骨文辭典》, 四川: 四川辭書出版社, 1990.
蕭兵, 《神話: 太陽英雄神話的奇蹟棄子英雄篇》, 臺北: 桂冠出版社, 1992.

- 윤순, 〈古代 中國과 《三國遺事》의 感生神話 연구〉, 《清大學術論集》 제1집 〈인문과학〉, 2003.
- 정재서역주, 《山海經》, 서울: 민음사, 1993.
- 카트린 몽디에 콜, 미셸 콜 지음, 이옥주 옮김, 《키의 신화: 프로크루스테스에서 엄지 동자까지, 인간에게 키는 무엇인가》, 서울: 궁리, 2005.

《中文提要》

中國古代人對於巨人的認識, 隨着時代觀念的變化而有所不同. 古代文獻裏的巨人, 一般稱之為‘大人’, 或‘長人’. 而‘巨人’此一稱號, 乃是從漢代以後方才普遍化的. 大人、長人除了指身高的人以外, 還包含著‘道德高尚’的君子, 及‘社會身分地位’崇高, 和‘年長者’等不同意義.

在伏羲、后稷的誕生神話裏, 巨人神曾經以‘大跡’形態出現, 成為始祖神聖的父系血統. 戰國時期以來流行的神仙故事中所出現的神仙, 也是在中國東海上自由飛翔的不死巨人.

古代中國人想像周邊各國多有巨人存在, 此種想法充分反映在古代中國人的地理觀與世界觀. 而在周圍異邦人士當中, 談到東方巨人的記錄特別的多, 這可能是基於在古代中國之東方, 曾經有身體高大的種族居住過的歷史事實. 《春秋》, 《國語》, 《山海經》等古代歷史記錄或神話當中, 被稱謂‘大人’, ‘長狄’的巨人族, 曾經住在中國的東北方, 在漫長的歲月當中, 他們與華夏民族時而為隣, 時而對峙. 值得注意的是, 長狄巨人族與神仙故事中的巨人, 在後代文獻裏便已經混淆不清, 對於這一問題, 頗為值得深入檢討.

戰國以後巨人的出現, 時而被解釋為吉兆, 時而被認為是凶兆. 秦始皇時期巨人的出現被是之為祥瑞, 但是到了漢代以後, 隨著災異觀念的流行, 京房等人把他們看成是‘長狄’, 認為他們的出現是災異的‘前兆’, 具有警告類似帝王死亡及國家旋將有滅亡之事發生. 在現實世界中, 漢代以前被視為武士、力士而被人們所崇拜的巨人, 漸次喪失其英雄的尊嚴, 在《魏書》、《宋書》以後, 他們的長身反而被認為是一種疾病, 而非以正常人來加以看待. 這些對於巨人歷史觀念的轉變, 可以充分及見古代中國人對於巨人之認識.

關鍵詞： 巨人, 大人, 長人, 神仙, 巨人跡

이 논문은 2009년 5월 11일에 접수되어 2009년 6월 1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9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